

Daily Media Clipping

2015. 06. 08

매체	아주경제	노출일	2015.06.08
지면	온라인	기자	박현주 기자
헤드라인	금천예술공장, 11일부터 '6기 입주예술가 오픈 스튜디오'		

<http://www.ajunews.com/view/20150608100144559>

아주경제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금천예술공장은 오는 11일부터 <6기 입주예술가 오픈스튜디오 &우글거리는 미로들>을 개최한다.

지난 6년간의 금천예술공장 '커뮤니티&리서치 프로젝트'를 재조명한 기획전이다. 작년 7월 금천예술공장에 입주한 6기 작가 20명의 창작 과정과 결과를 각자의 작업실에서 14일까지 공개한다.

11일 오후 6시 창고동 작업실에서 열리는 개막행사는 제65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초청작인 리오 샴리즈(38, Lior Shamriz) 감독의 '공백의 얼굴들' 일부를 최초로 상영하며 문을 연다. 이날 태이(38, Taey Iohe)의 '잠물결 II' 퍼포먼스가 이어지고, 로비와 주차장 등 공간 곳곳에서 권혜원(41)의 '구로극장', 옥정호(42)의 '손금놀이', 김세진(45)의 '일시적 방문자'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특히 '위로공단'으로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임흥순(47)이 금천미세스와 공동 기획한 '금천블루스'(2012)를 상영한다. 금천구에서 나고 자란 지역 주부들 금천미세스의 삶 이야기와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의 역사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영화이며, 단편 '굴레', '미싱킴', '피아노', '시간버스'로 구성된 이 작품은 제6회 서울노인영화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연두(47)는 금천구의 영세민 아파트 30여 가구의 가족사진 촬영을 통해 동일한 평수의 동일한 구조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남서울 무지개'(2011)라는 제목의 연작 사진에 담았다.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이웃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작품은 슬라이드쇼 형식으로 전시된다.

차재민(30)은 섬세한 카메라 움직임과 크로마키 기법을 이용해 TV 케이블 설치 노동자의 작업 과정을 보

여주는 영상작업인 '미궁과 크로마키'에서 우리가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노동'을 제대로 감각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입주작가의 창작실인 스튜디오를 개방하는 오픈스튜디오는 작가들의 치열한 고민과 실천들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다. 무료 관람.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 참고. 02-807-4800



[기획전 사진 2] 임흥순&금천미세스 Im Heung-soon & Geumcheon Mrs. 금천블루스, 미싱킴, HD, 6min 50sec, 연출 김현미, 기획 임흥순&금천미세스, 2012]

▶<우글거리는 미로들 : 금천예술공장 도시리서치 2009-2014> 참여작가 : 커뮤니티&리서치 참여작가 임흥순(2기/3기)&금천미세스(4기/5기), 연기백(5기/6기), 정연두, 차재민(4기), 태이(영국/5기) / 기획전 출품작가 박광수(6기), 신지선(6기), 안정주(3기), 안동일, 그리고 기획자 이대범

▶오픈 스튜디오 참여작가 (6기 입주작가) : 가다 다(Ghada da, 사우디 아라비아), 권혜원, 김기라, 김동조, 김세진, 디아나 아투스(Diana Artus, 독일), 리오 샴리즈(이스라엘), 박광수, 베레나 이셀(독일), 사라 게스만(스위스), 신지선, 여다함, 연기백, 옥정호, 이로경, 이수진, 이예승, 이혜인, 텡 차웅 웬(Ting Chaong Wen, 대만), 그리고 금천미세스(4기/5기 입주 금천구 예술가 그룹, 커뮤니티&리서치 스튜디오 공개)

■금천예술공장=금천구 독산동의 인쇄공장을 리모델링하여 2009년 개관했다. 회화, 설치, 영상, 사진 등 시각분야 작가들에게 창작 공간과 작업 실현을 지원하는 레지던시 스튜디오다. 현재까지 세계 30개국 238명(팀)의 입주 작가들이 거쳐 가며 국제 레지던시로 입지를 굳혔다. 2009년부터 시작한 커뮤니티&리서치 프로젝트는 서울지역을 기반으로 작업하는 작가들에게 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45명의 작가들이 작업을 진행했다.

Daily Media Clip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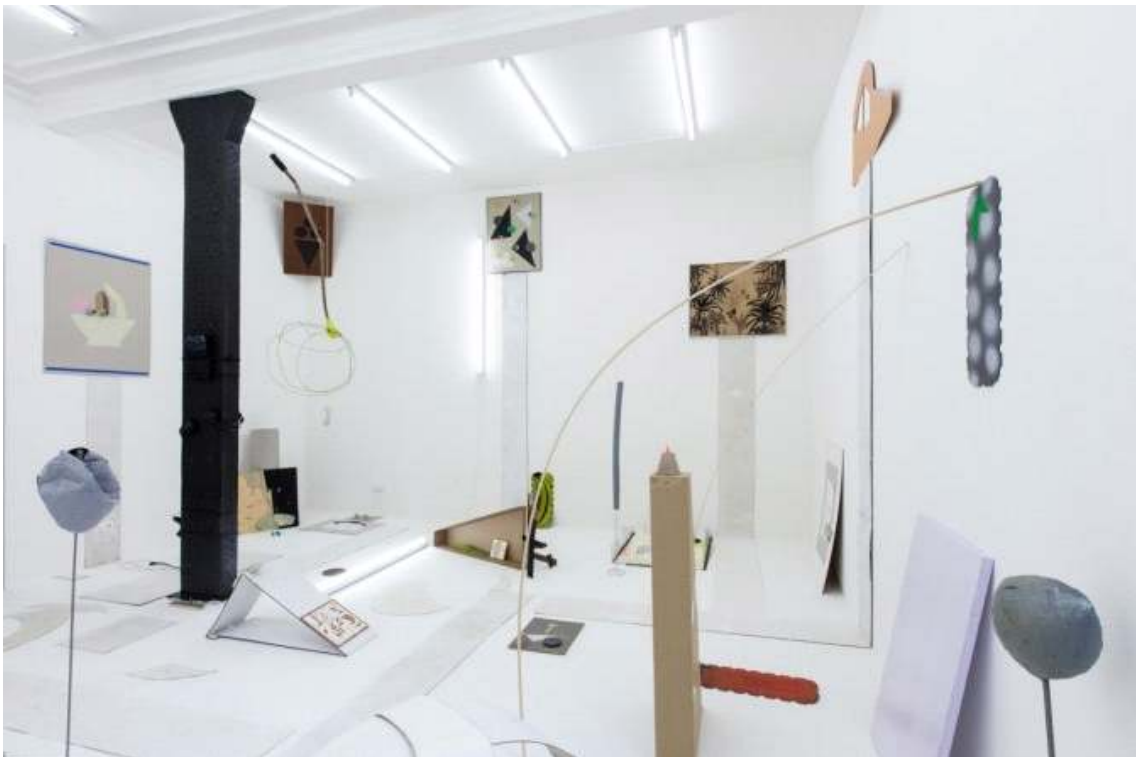
2015. 06. 08

매체	글로벌이코노믹	노출일	2015.06.08
지면	온라인	기자	노정용 기자
헤드라인	작가들의 작업현장 궁금하세요?...금천예술공장, 6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전격 공개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506081057496257054_1/article.html

글로벌 이코노믹

지난 6년간 지역기반작업 결과물 '우글거리는 미로들'展 6월말까지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은사자상 수상자 임흥순의 '금천블루스' 상영도



베레나 이셀의 오픈 스튜디오

일반인들은 대개 작가들의 작업현장을 보기 힘들다. 작가들이 작업과정은 대부분 비밀에 부치고 완성된 작품만 갤러리나 아트페어를 통해 공개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줄 작가들의 스튜디오가 공개된다.

금천예술공장은 오는 11일부터 '6기 입주예술가 오픈스튜디오 & 우글거리는 미로들'을 개최한다.



이예승 오픈 스튜디오

지난 7월에 금천예술공장에 입주한 6기 입주작가는 가다 다(Ghada da, 사우디 아라비아), 권혜원, 김기라, 김동조, 김세진, 디아나 아투스(Diana Artus, 독일), 리오 샴리즈(이스라엘), 박광수, 베레나 이셀(독일), 사라 게스만(스위스), 신지선, 여다함, 연기백, 옥정호, 이로경, 이수진, 이예승, 이해인, 텡 차옹 웬(Ting Chaong Wen, 대만), 그리고 금천미세스(4기/5기 입주 금천구 예술가 그룹, 커뮤니티&리서치 스튜디오 공개) 등이다. 이들은 창작 과정과 결과를 각자의 작업실에서 14일까지 공개한다.



임흥순&금천미세스 '금천블루스'

11일 오후 6시 창고동 작업실에서 열리는 개막행사는 제65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초청작인 리오 샴리즈(38, Lior Shamriz) 감독의 '공백의 얼굴들' 일부를 최초로 상영하며 문을 연다. 공식개막 후 태이(38, Taey Iohe)의 '잠물결 II' 퍼포먼스가 이어지고, 로비와 주차장 등 공간 곳곳에서 권혜원(41)의 '구로극장', 옥정호(42)의 '손금놀이', 김세진(45)의 '일시적 방문자'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잠물결 II'는 일곱 개의 침대, 비디오 설치, 실험 음악과 라이브 퍼포먼스를 통해 수면부족 도시의 사람들의 깨어남과 잠들을 관객 앞에서 약 15분 동안 선보인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안한 삶과 사적인 공간을 재현하려는 의미다. 또 '구로극장'은 구로를 배경으로 한 문학과 영화작품의 여러 장면을 6명의 배우들이 재연하는 이동식 극장이다. '손금놀이'는 관객참여형으로 준비됐으며, '일시적 방문자'는 개막행사 당일만 관람할 수 있는 퍼포먼스다.



태이의 퍼포먼스 '잠물결2'

'미로들'展은 지난 6년 동안 진행한 지역기반작업 제작지원 사업 '커뮤니티&리서치 프로젝트' 참여작가 5명(팀)과 안정주(37)를 비롯한 4명(팀)의 작품을 엄선했다. 특히 '위로공단'으로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임흥순(47)이 금천미세스와 공동 기획한 '금천블루스'(2012)를 상영한다. 금천구에서 나고 자란 지역주부들 금천미세스의 삶 이야기와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의 역사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영화이며, 단편 '굴레', '미싱킴', '피아노', '시간버스'로 구성된 이 작품은 제6회 서울노인영화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연두 '남서울 무지개'

정연두(47)는 금천구의 영세민 아파트 30여 가구의 가족사진 촬영을 통해 동일한 평수의 동일한 구조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남서울 무지개'(2011)라는 제목의 연작 사진에 담았다.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이웃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작품은 슬라이드쇼 형식으로 전시된다. 차재민(30)은 섬세한 카메라 움직임과 크로마키 기법을 이용해 TV 케이블 설치 노동자의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작업인 '미공과 크로마키'에서 우리가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노동'을 제대로 감각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김동조(36)의 '창', 리오 샴리즈의 '더 나이트', 박광수(32)의 '트레이싱 프로젝트', 베레나 이셀(34, Verena Issel)&사라 게스만(36, Sara Gassmann)의 '시선의 계층 구조' 등은 스튜디오 바깥으로 나와 금천예술공장의 공간 곳곳에서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리오 샴리즈의 영화는 지하에 조성한 극장에서 3주간 상영한다.

Daily Media Clipping

2015. 06. 08

매체	연합뉴스	노출일	2015.06.08
지면	온라인	기자	김정선 기자
헤드라인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메르스 여파로 전시 취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8/0200000000A*****8170600005.HTM L?input=1195m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서울문화재단은 금천예술공장에서 열 예정이었던 입주작가 오픈 스튜디오 행사와 전시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취소한다고 8일 밝혔다.

금천예술공장은 11일부터 6기 입주예술가 20명의 작업현장을 주말까지 공개하고 지난 6년간 작가들의 프로젝트를 조명한 기획전 '우글거리는 미로들: 금천예술공장 도시 리서치 2009-2014'를 선보일 계획이었다.

서울문화재단 측은 "메르스가 예상보다 확산하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입주작가 등이 자체 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Daily Media Clipping

2015. 06. 08

매체	아주경제	노출일	2015.06.08
지면	온라인	기자	박현주 기자
헤드라인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메르스 여파로 전시 취소		

<http://www.ajunews.com/view/20150608183623371>

아주경제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서울문화재단은 금천예술공장에서 열 예정이었던 입주작가 오픈 스튜디오 행사와 전시를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취소한다고 8일 밝혔다.

금천예술공장은 11일부터 6기 입주예술가 20명의 작업현장을 주말까지 공개하고 지난 6년간 작가들의 프로젝트를 조명한 기획전 '우글거리는 미로들: 금천예술공장 도시 리서치 2009-2014'를 선보일 계획이었다.

서울문화재단 측은 "메르스가 예상보다 확산하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입주작가 등이 자체 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Daily Media Clipping

2015. 06. 08

매체	TBS 교통방송	노출일	2015.06.08
지면	온라인	기자	신지윤 기자
헤드라인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메르스 여파로 전시 취소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5&seq_800=10092082



서울문화재단이 금천예술공장에서 열 예정이었던 입주작가 오픈 스튜디오 행사와 전시를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여파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측은 오는 11일부터 입주예술가 20명의 작업현장 공개와 기획전을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메르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Daily Media Clipping

2015. 06. 09

매체	글로벌이코노믹	노출일	2015.06.09
지면	온라인	기자	노정용 기자
헤드라인	메르스 여파로 금천예술공장 6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행사 취소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506090731228386234_1/article.html

글로벌 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메르스 여파로 금천예술공장이 오는 11일부터 예정한 6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와 '우글거리는 미로들'展(6월 8일 '작가들의 작업현장 궁금하세요?...금천예술공장, 6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전격 공개' 보도)을 모두 취소했다.

서울문화재단은 9일 "금천예술공장의 '우글거리는 미로들'展 개막식을 비롯한 오픈스튜디오는 물론 전시회도 취소되어 추후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행사 취소 이유는 메르스가 예상보다 대규모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회를 강행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노정용 기자 noja@

<저작권자 © 글로벌이코노믹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aily Media Clipping

2015. 06. 09

매체	아시아투데이	노출일	2015.06.09
지면	온라인	기자	전혜원 기자
헤드라인	메르스 여파로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전시 취소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609010005433>



아시아투데이 전혜원 기자 = 서울문화재단은 금천예술공장에서 열 예정이었던 입주작가 오픈 스튜디오 행사와 전시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취소했다.

금천예술공장은 오는 11일부터 6기 입주예술가 20명의 작업현장을 주말까지 공개하고, 지난 6년간 작가들의 프로젝트를 조명한 기획전 '우글거리는 미로들: 금천예술공장 도시 리서치 2009-2014'를 선보일 계획이었다.

서울문화재단 측은 "메르스가 예상보다 확산하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입주작가 등이 자체 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